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남형우	9	청년부	주하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교회소식

### 모임

1. 아브라함선교회 월례회 / 13일(주일) 2부 예배 후 102호
2. 에스더전도회 월례회 / 13일(주일) 오후 12시 50분 802호
3. 바자본부 모임 / 13일(주일) 오후 1시 609호
4. 모세선교회 월례회 / 13일(주일) 오후 2시 602호
5. 리브가전도회 월례회 / 13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알림

1. 사랑 나눔 장터 기간 **예배 장소 변경** / 사랑 나눔 장터가 열리는 이번 주간(10월 14일-19일) 동안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는 본당에서 모입니다.
2. 권사회 주관 교회를 위한 기도회 / 매 주일 오후 1시 101호
3.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010-2376-3892번으로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분야: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문자 양식: 교구, 성명, 상담분야)
4. 70인전도대 노방전도(바울, 엘리야) 13일(주일) 오후 1시 603호  
70인전도대 노방전도(하나) 16일(수) 오후 1시 603호, 에스더 오후 2시 603호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602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6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202호

부목사 장석남 김익한 현종필 최중국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협동목사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카자흐스탄), 이경엽·송은옥,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위나이(인도), 에디슨 물릭, 라존 뽀꾸아, 까첸드로 리씨, 도렌드로 디오, 토론 째부공, 오물 짜꼬마, 폰노야 므롱, 맨톤 므롱(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김명일, 김춘기(군선교)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용서”

### ■ 마태복음 18:21-35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삶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라는 삶의 가장 큰 재료가 ‘용서’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용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베드로의 질문

본문은 베드로의 다소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질문에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면 그의 모든 것에 정당성,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거나 우리 사회에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는 끝까지 저항하고 배척하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18절에 ‘...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처입고 고통당하고 삶이 무너진 내가 그를 용서 못한 채 풀지 않고 살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겐 죄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며 어머니며 사랑하는 자식이며 형제입니다. 그러니 풀어야 합니다.

#### 2.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상 이것은 무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면서 23절 이하 말씀에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용서하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이 문제를 법률이나 상식 그리고 인간의 아량과 도덕에서 찾으면 결코 답이 없습니다. 영적 논리로 생각해야 답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명심할 때 이웃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 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의 괴수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나나 뿐인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끼리의 일들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3.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길

주님은 본문 끝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 6:12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우리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눅 23:34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용서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먼저 용서를 간청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경죄에 매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 죄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영혼의 평화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아버지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김승록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김혜언 장로		
입례송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	요 4:23...	인 도 자	* 신앙고백 .....	다 함 께
기 원 .....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	찬 양 팀
* 찬 송 .....	9(4절)...	다 함 께	환영과 축복 .....	다 함 께
* 신앙고백 .....		다 함 께	* 봉 헌 .....	다 함 께
* 성시 교육 .....	5(시 8)...	다 함 께	* 봉헌, 목회기도 .....	설 교 자
* 송 영 .....	6 ...	다 함 께	찬 양 .....	찬 양 대
기 도 .....	말 은 이		교회 소식 .....	영 상 광 고
찬 송 .....	284...	다 함 께	성경 봉독 .....	엡 2:12-22... 설 교 자
성경 봉독 .....	마 18:21-35...	인 도 자	설 교 .....	“하나님의 큰 그림”... 현종필 목사
성도의 교제 .....	다 함 께		결단의 기도와 찬양 .....	찬 양 팀
봉헌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봉헌송 .....	634...	다 함 께	* 후 주 .....	찬 양 팀
* 봉헌기도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	다 함 께			
설 교 .....	“용서”... 손달익 목사			
* 찬 송 .....	218...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유태왕	차주연	양경실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백주원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최유현		김양언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영은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최종국 목사	안홍희 집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45:1-2 ...	인 도 자
찬 송 .....	26 .....	다 함 께
기 도 .....	말 은 이	
찬 송 .....	540 .....	다 함 께
성 경 .....	고전 1:26-3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주 안에서 자랑하라” ...	최종국 목사
* 찬 송 .....	310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최종국 목사	박민숙 권사
II 오후 7시	최종국 목사	이건희 권사
성 경 .....	마 3:13-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세례 받으신 주님” ...	손달익 목사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 안효주  
설 교 ..... 손달익, 현종필 목사

## 금요기도회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